

‘민선 8기’ 광주·전남 운영 과제는

# “6개월 안에 해답 찾겠다”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6·1지 방선거 경선 때부터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약속해 왔다. 강 당선인은 “광주 현안에 대해 6개월 안에, 빠르게 답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현안은 전남과의 협력이 절실한 군공항 이전이다. 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부 대 양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광주 상생정책협약식’을 갖고 ‘군공항 이전 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밀그림도 내놴다. 강 당선인은 민·관 주도의 ‘수익형 특화관광단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치공원 동물원을 어등산에 사파리 형태로 이전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통한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법 제정·어등산 민·관 진행**  
케이블카는 중립... 지산 IC 추진 속도 강 당선인은 무등산 국립공원의 보호·보존을 원칙으로 여론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존 탐방로에 친환경경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며 쇼핑, 문화, 여가를 한 곳에 아우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극복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지산 나들목(IC) 개통은 강 당선인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문제다. 강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광주시도 전용차로 도입과 추가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 “비전·공약 점검 현안 해결”

**전남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인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99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17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남권에도 의과대학이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코로나 19가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68만 3,000㎡에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은 건설 부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흑산공항과 관련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는 “흑산공항은 그간 99를 준비해 왔으며, 마지막 1이 남아있는 상황. 다 된거나 마찬가지다”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항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원칙주의다. 대안을 모색해 대체부

**국립의대 신설 논의조차 중단 ‘빨간불’**  
흑산공항·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중점 지까지 마련된 만큼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전남도의 핵심 현안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의 비전·공약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약은 도지사 선거공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8대 분야 24 정책과제 113개 세부 실천과제다. 발굴된 비전과 공약, 정책과제는 분과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논의·확정한다. /김용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 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단독 후보도 선거운동 허용해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이들은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

## 지역 국회의원 후보기 상임위 배치 윤곽

**특정 상임위 쏠림 심화**  
21대 국회 후보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년간 광주·전남 의원들이 활동하게 될 상임위원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쏠림 현상이 심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보기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집중되고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지원한 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비해 지역 현안 해결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상임위는 끼리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명으로 가장 많아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솔라시도로’ 명명

전남도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와 영암 삼호읍 서호리를 잇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에 ‘솔라시도로’라는 광역도로명을 부여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해남과 영암 일원에 에너지 중심의 정원도시형 스마트 도시인 구성지구, 고품질 중심의 관광레저도시인 삼호지구,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산업 밸리인 삼포지

###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